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카자흐스탄

Republic of Kazakhstan

2021년 9월 17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일반개황

<b>면적</b> 2,725천 km <sup>2</sup> 	<b>인구</b> 19.1백만 명 (2021) 	<b>정치체제</b> 대통령 중심제 	<b>대외정책</b> 친 러시아, 대 중국 협력 확대, 대 서방 우호관계 유지 
<b>GDP</b> 1,878억 달러 (2021) 	<b>1인당GDP</b> 9,828 달러 (2021) 	<b>통화단위</b> Tenge 	<b>환율(U\$기준)</b> 429.3 (2021)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과 우라늄, 크롬, 아연,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19년 6월 집권한 토카예프 대통령의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의회 선거에서도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음.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은 국가안보위 의장, 여당인 '누르오탄'당 대표 등으로 정치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2050 전략', '누를리 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2025 전략발전계획' 등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카자흐스탄(2018~2022)', '농업개발(2017~2021)' 정책 등을 통해 부문별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서 협력하고 있음. 또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안보, 환경, 수자원 등 공통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28 수교 (북한과는 1992. 1. 28)

**주요협정** 무역협정('92), 문화협정('95), 투자보장협정('96), 과학기술협력협정('97), 이중과세방지협정('99),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4),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정('06), 원자력협정('10) 등

###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797,818	2,657,131	1,997,529	산업용 전기기기, 자동차,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수입	1,362,109	1,561,644	1,090,196	원유, 우라늄, 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3월 말 기준 누계, 총투자기준) 327건, 2,668,000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제성장률	4.1	4.1	4.5	-2.6	3.2
소비자물가상승률	7.4	6.0	5.2	6.8	6.4
재정수지/GDP	-4.3	2.6	-0.6	-7.3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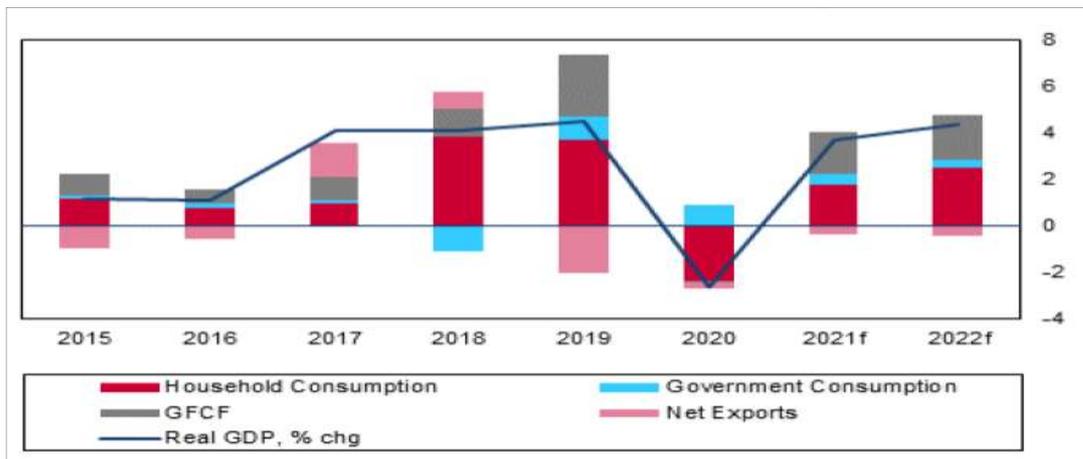
자료: IMF, EIU

### 2021년 대내외 경제환경 개선으로 플러스 경제성장 전망

- 2020년 카자흐스탄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수출이 감소하여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코로나19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및 가스의 생산(2020년 원유생산량은 2019년 대비 24% 감소)과 수출규모가 감소하고 국내소비도 감소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는 2019년 배럴당 평균 66달러에서 2020년 1분기에 26.35달러로 크게 하락한 뒤, 2분기에 41.27달러, 4분기에 51.80달러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 2/4분기에는 74.62달러로 상승하였음.<sup>1)</sup>

###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단위: %)



자료: Fitch

## 국내경제

- 2020년의 평균 실업률은 5.1%로 동일한 신용등급(피치 기준 BBB) 국가들의 평균인 7.6%(러시아 5.8%, 인도네시아 7.0%)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IMF에 따르면 2021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민간소비도 증가하여 3.2%(카자흐스탄 정부 전망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4.0%(카자흐스탄 정부 전망 3.9%)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됨.
- 카자흐스탄 경제부는 2023~26년 동안에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sup>2)</sup>

###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 및 교역액 전망

항목	2022 <sup>f</sup>	2023 <sup>f</sup>	2024 <sup>f</sup>	2025 <sup>f</sup>	2026 <sup>f</sup>
경제성장률(단위: %)	3.9	5.3	4.6	5.0	5.2
수출액(단위: 10억 달러)	60.1	68.2	75.0	77.7	79.8
수입액(단위: 10억 달러)	40.8	42.0	42.3	42.5	43.4

자료: 카자흐스탄 경제부("2022~26년 카자흐스탄 사회-경제발전 전망", 2021년 8월 24일)

###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 확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축소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20년 3월부터 GDP의 8%에 이르는 13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7.3%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정부는 실업자들에 대해 일인당 월 95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고 연금 및 사회적 지원금의 10% 인상을 시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의료 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 인상과 의료기관 장비 지원, 농업 부문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실시함.
- 이외에 기업의 고용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자산세, 토지세, 개인소득세 등)을 실시하였음.
- 중앙은행과 2019년에 설립된 '금융시장조정 및 발전청(Agency for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음.
- 2021년에는 에너지 수출 증대에 따른 세입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GDP 대비 -3.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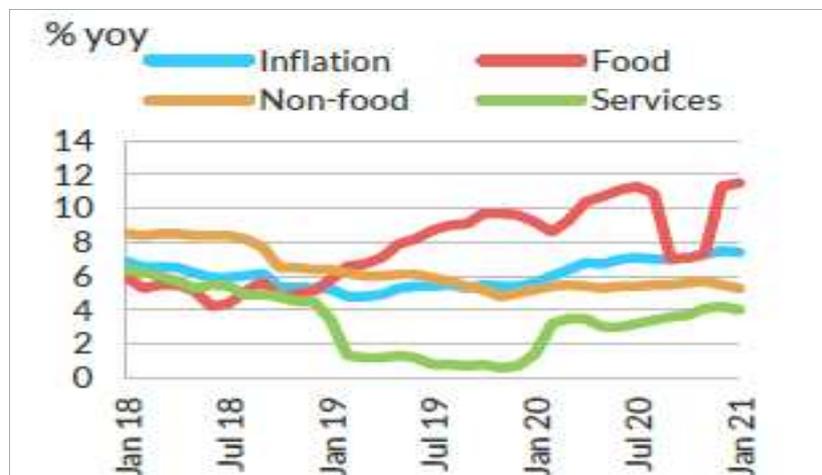
<sup>2)</sup> 카자흐스탄 경제부 (<https://economy.kz>)

## 국내경제

### 경기회복과 6%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에 따라 2021년 7월 기준금리 인상

- 식료품, 서비스 등의 물가 상승에 따라 2020~21년 6%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주요 품목별 상승률(2018.1~2021.1)



자료: Fitch

- 카자흐스탄 정부는 6%를 상회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 2021~23년에는 4~6%, 2023~25년에는 4~5%, 2025년 이후에는 3~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20년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의 경기 회복과 식료품 등의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2021년 7월 기준금리를 9.25%로 인상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2021년 상반기에 국제에너지 시장의 가격 상승과 봉쇄해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었음.

\*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이: 12%(2020.2월) → 9.5%(2020.4월) → 9%(2020.7월) → 9.25%(2021.7월).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f</sup>
경 상 수 지	-5,102	-138	-7,296	-6,273	-5,659
경상수지/GDP	-3.1	-0.1	-4.0	-3.8	-3.0
상 품 수 지	16,728	25,579	18,130	10,506	18,618
상 품 수 출	47,301	59,826	58,165	46,714	66,947
상 품 수 입	30,573	34,247	40,034	36,208	48,329
외 환 보 유 액	17,469	15,772	9,320	11,262	11,736
총 외 채	167,218	158,825	156,802	155,767	156,811
총외채잔액/GDP	100.3	88.6	86.3	94.5	83.5
D.S.R.	22.1	19.4	20.1	19.3	15.2

자료: IMF, EIU

### 2021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감소 전망

- 20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0%로 전년 대비(-3.8%)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나, 서비스 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카자흐스탄은 상품수지에서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에너지 및 광물 부문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20년에는 원유 생산 및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 이후 원유생산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수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원유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배럴/일 평균)

	2000~2017 평균	2018	2019	2020	2021 <sup>f</sup>	2022 <sup>f</sup>
원유 생산	1.39	1.86	1.86	1.76	1.81	1.86
원유 수출	1.18	1.43	1.44	1.30	1.37	1.40

자료: IMF

## 대외거래

-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확산과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텡게화 환율은 2020년 3월 중순~4월 초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1달러 당 380텡게 ⇒ 447텡게), 4월 중순부터 점차 하락하여 2020년 말에는 1달러 당 420텡게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텡게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021년 5월 이후 1달러 당 420~430텡게에서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2020년 1월~2021년 8월)

(단위: 텡게/1 달러)



자료: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 외채상환능력

### GDP 규모 및 수출 증가에 따른 외채상환지표 개선

- 2021년에는 GDP 규모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전년도의 94.5%에서 8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GDP 대비 공적채무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3.8%(카자흐스탄 경제부)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아울러 2021년에는 수출액 증가에 따라 D.S.R.(외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전년도의 19.3%에서 15.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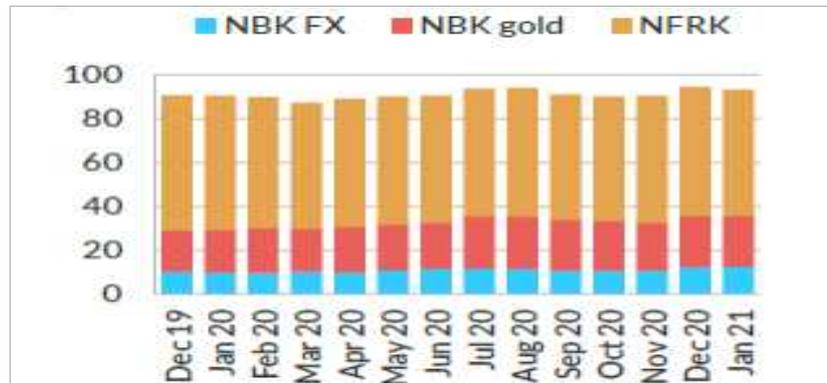
## 외채상환능력

### 대규모 국부펀드 운영으로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보유

- 카자흐스탄은 국영 에너지기업의 수출 소득으로 구성되는 국부펀드 자금이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GDP의 30%에 이르는 575억 달러(Fitch)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는 에너지 수출 증가에 따라 국부펀드 자금이 점차 증가하여 2024년 말에는 61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국부펀드 자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과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자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외환자산 구성

(단위: 십억 달러)



자료: Fitch

## 구조적취약성

### 에너지 부문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와 제조업 및 농업의 부진

- 석유 및 가스 산업이 GDP의 35%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정의 44%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원유 및 가스 부문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54%의 비중을 점하고 있음(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원유의 수출 비중은 2019년의 58%에서 2020년에는 50%로 감소).
- 2020년 제조업은 GDP의 12.7%, 수출의 32.6%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2016년 35%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생산 비중을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1.5배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수출에서 원자재와 제조업 제품 비중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원자재	77	69	65	68	74.3	72.6	67.4
제조업 제품	23	31	35	32	25.7	27.4	32.6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https://stat.gov.kz>)

- \* 이처럼 에너지 산업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에너지 자원 분야에 집중된 것에도 원인이 있음. 2019년 기준 에너지 자원 분야에 대한 FDI는 전체의 56%를 점유하였으나, 제조업에 대한 FDI 비중은 14%에 불과하였음. 에너지 분야에 대한 FDI의 80~90%는 텡기즈, 카라차가낙, 카사간 주요 3대 유전에 집중되어 있음.
- \* 2020년 FDI는 2019년 대비 35%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미국 석유대기업인 Chevron의 텡기즈 유전 개발에 대한 투자, 중국 Yutong 그룹의 카라간다 지역 버스 제조공장 투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평가됨.<sup>3)</sup>
- 2020년 농촌 거주 인구는 전체의 42.3%, 농업 고용인구는 전체의 14.9%를 기록하고 있으나, 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4.4%를 기록하여 농업 부문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취약한 국제물류 환경

- 유라시아 지역의 내륙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2018년 국제물류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순위에서 전체 평가대상 160개국 가운데 71위를 기록했으며, 물류역량에서 90위, 국제수송에서 84위, 물류 인프라에서 81위를 기록하여 국제물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정부의 물류 행정도 매우 취약하여 2019년 말에 발표된 'Doing Business Index 2020'에서 카자흐스탄은 통관행정 부문에서 105위로 낮은 순위(전체 순위는 세계 190개국 중 25위)를 기록하였음.
- 이는 통관행정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서류 준비 및 비용, 시간 등에서 카자흐스탄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성장잠재력

###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광물 자원 보유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천연자원 개발로 에너지 관련 산업이 발전하였음.
- 카자흐스탄의 석유 확인매장량은 300억 배럴로 세계 12위(1.7% 비중), 천연가스 매장량은 2.3조 m<sup>3</sup>로 세계 16위(1.2%의 비중) 규모로 에너지 생산을 통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특히, 원유는 CIS 지역에서는 러시아 다음의 생산국(2020년 기준 연 8,610만 톤)으로, 세계 원유생산량의 1.8%를 점유하고 있음. 향후 텡기즈, 카샤간, 카라차가낙 주요 3대 유전 개발이 이루어지면 연 1억 톤의 원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로 연결된 기존의 송유관과 가스관에 추가하여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망을 확보하였음.
- 2009년 중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추가로 건설하여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중국으로 연결된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 보유

- 카자흐스탄은 중부와 남부 스텝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4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할 계획임.
- 카자흐스탄은 연평균 일조시간이 2,500시간에 달하며, 연 1,500~1,600 kWh/m<sup>2</sup>의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5%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7년 '미래 에너지'라는 주제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신재생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18년의 1.3%에서 2030년에는 10%, 2050년에는 50%로 각각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20년 카자흐스탄의 남부 잠빌 주에 9,530만 달러 규모의 자나타스 풍력 발전소(Zhanatas 100 MW wind farm)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이 풍력 발전소 건설에는 AIIB, EBRD, 중국공상은행(ICBC), 녹색기후기금(GCF)이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내의 녹색금융센터, 유라시아개발은행(EDB, Eurasian Development Bank) 등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정책성과

### 장기 전략인 '2050 국가전략'과 실행계획인 '2025 국가발전계획' 목표에서 성과

- 정부는 2012년에 2050년까지 세계 30대 주요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2050 국가전략'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실행계획으로 2021년 3월부터 '2025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국가전략'에서는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민간 부문을 포함한 제조업 육성, 인프라 현대화, 기업 경영 환경 개선, 인재 양성, 천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25 국가발전계획'에서는 다각화된 혁신기반 경제 구축, 효율적인 보건체계 구축 등 10개의 국가적 우선 사업이 제시되었음.
  -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기업경영지수(Doing Business Index)에서 성과를 거두어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2014년에 발표된 'Doing Business Index 2015'에서 세계 189개국 중에서 77위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 발표된 'Doing Business Index 2020'에서는 25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음. 세부적으로는 법적분쟁 해결에서 4위, 소액투자자 보호에서 7위, 창업에서 22위를 기록했음.
  - 수도인 누르술탄에 국제금융센터를 설립하여 역내 국제금융 중심지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마티에는 IMF에서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의 '역량개발센터'가 설립됨.
  -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stan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는 2018년에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의 국제금융 허브 육성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아스타나 증권거래소를 개설하였음.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중국, 유럽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며, 투자기업에게 세제 혜택과 비자면제 등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음.
  - 2020년 12월에는 IMF와 공동으로 알마티에 'Regional Capacity Development Center(지역역량개발센터, CCMTAC)' 설립이 결정되었음. 이 지역역량개발센터는 향후 중앙아시아 5개국과 코카서스 3국(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몽골을 대상으로 'capacity development(역량개발)\*'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 역량개발은 '개인과 조직, 단체가 공동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역량을 발굴, 강화, 창조, 도입 또는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부문에서의 기반환경 조성, 기술발전,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시민 의식 형성 등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음.

4) 정지원·송지혜(2013),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조.

## 정책성과

###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6년 정부 내에 '디지털 발전, 혁신 및 항공우주부'를 설립하고 디지털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초에 발표된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 정책을 통해 경제 각 부문의 디지털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실크로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주요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ICT 산업 발전을 위해 '누르술탄 허브'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지원함.
- 수도인 누르술탄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ICT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200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음. 현재 화웨이, IBM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였음.
- 2003년에 지정된 IT 경제특구인 알마티 IT파크에는 다수의 IT 관련 기업들이 진출하였음. IT파크에서는 외국 IT기업들과의 협력, IT 교육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4개의 관련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음.

### PPP 프로젝트 활성화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에너지·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PPP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PPP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2021년 6월 기준 811건, 1조 2,071억 텡게(28억 달러)<sup>5)</sup> 규모의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sup>6)</sup>
- 카자흐스탄의 PPP 계약 체결건수는 2015년 말 6건에서 2017년 말 189건, 2019년 1월 615건, 2021년 6월 81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sup>7)</sup> 이외에도 2021년 2월 기준으로 276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이 진행 중에 있음.
- 도로·공항 현대화 등 교통 인프라, 풍력·태양광 등 에너지 인프라, 병원·학교 건설 등 사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의 주요 PPP 프로젝트 성과

부문	명칭	내용
도로	알마티 순환 도로	총연장 66km, 총사업기간 20년(공사기간 50개월, 운영기간 15년 10개월)
태양광	Nura 태양광 플랜트	북카자흐스탄 아크몰린 주에 100MW 전력 생산 태양광발전소 건설(러시아의 Hevel 그룹 수주), EDB 자금 지원
풍력	Zhanatas 풍력 발전소	잠빌 주 자나타스 지역에 100MW 전력 생산 풍력발전소 건설(중국의 국영전력공사 수주), AIIB 자금 지원(4,670만 달러)
공항	투르케스탄 공항 현대화	전체 905ha 면적에 1만 m <sup>2</sup> 규모의 여객터미널 건설(터키 YDA 그룹 수주)
병원	투르케스탄·페트로파블롭스크 종합병원 건설	투르케스탄에 610개의 병상 규모 및 페트로파블롭스크에 500개의 병상 규모 병원 건설(터키 YDA 그룹 수주)
통신	농촌 지역 통신망 구축	1,249개 농촌 마을에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

5) 2021년 6월 30일 환율 1달러=427.79 텡게 기준 <https://nationalbank.kz>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6) <https://kzppp.kz/projects> (카자흐스탄 PPP 센터)

7) <https://astanatimes.com>

## 정치안정

### 토카예프 대통령의 안정적인 집권 지속 가운데 나자르바예바 전 상원의장 정계 복귀

- 2019년 3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사임 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집권하고 있음.
- 전체 107석 가운데 98석을 선출하는 2021년 1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누르오타 당이 71.1%의 득표율로 76석을 확보하였으며, 친여당 성향의 Ak Zhol 당이 12석, 카자흐스탄 국민당이 10석을 차지하였음.
- 98석을 제외한 나머지 9석도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에 할당됨.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다리가 나자르바예바 전 상원의장이 2021년 1월 여당인 누르오타 당 소속 하원의원에 선출되어 정계에 복귀하였음.
- 2019년 전 대통령의 사임 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나자르바예바 의원은 2020년 5월 토카예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상원의장에서 사임하고 상원의원직을 상실하였으나, 2021년 하원의원에 선출됨에 따라 다시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함.

### 정치·사법 개혁 추진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집권 후 대통령 직속 ‘국가공공신뢰위원회’를 설립하고 사회, 정당, 민간 대표 등 각 분야 4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여러 분야 대표자들의 제안과 논의를 거쳐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부패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1년 초에 구체적인 정치 및 선거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한 최소 득표율을 기존의 7%에서 5%로 낮출 것과 향후 ‘모든 후보자에게 반대’ 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거제도 수정을 제안하였음.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어 왔던 농촌 지역 단위의 행정대표 선출에서 직접선거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 2021년 7월 실시된 주지사, 시장, 군수 등 지역 행정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에서 처음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반대’ 투표가 적용되었음.
- 이외에도 정부는 공무원의 수를 25% 줄이고, 청년층의 공무원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100개의 구체적 방안’ 정책에서도 사법제도의 개혁을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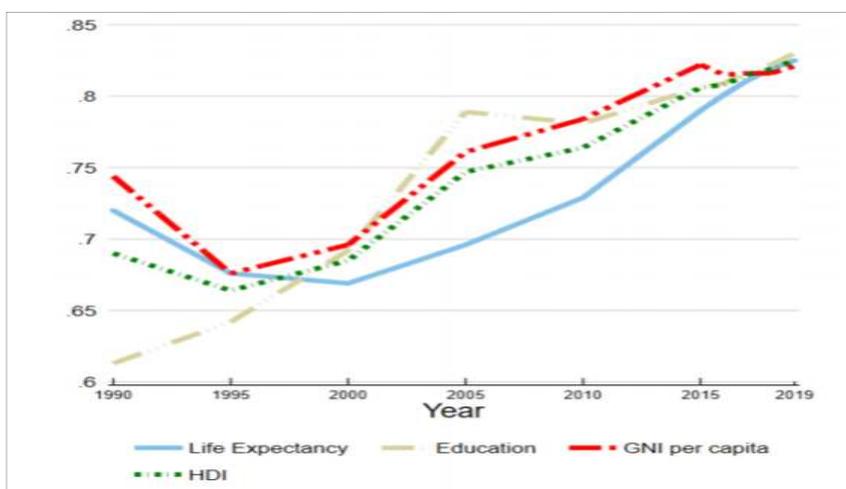
### ESG 신용영향점수는 '다소 부정적'으로 중위권으로 평가

- Moody's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원유 및 가스의 생산에 따라 환경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에너지 자원에 대한 경제의 높은 의존도(수출의 60%, 정부 재정의 40%)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정부가 산업다변화를 통해 비에너지 산업에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으로는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전체 예산의 20~25%에 달하며, 정부가 헬스케어, 교육, 주택 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다만, 국민들의 참여와 책임의식이 취약한 점이 주요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분석하여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을 통해 법적·제도적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정책 신뢰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나, 부패 통제, 법의 지배, 기업 거버넌스 등이 취약함. 전반적으로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UNDP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빠르게 상승 추세

- 카자흐스탄은 2019년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189개국 가운데 50위를 기록하였음.
- 인간개발지수는 교육수준, 평균 수명,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로 사회의 발전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진국 기준을 상회하는 50위의 순위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발전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인간개발지수(HDI)와 주요 구성 항목의 변동(1990~2019)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20

## 국제관계

###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에 적극 참여

- 2021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바자(Avaza)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음.
-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양자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교역, 운송 및 교통,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이 논의되었음.
-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주요 이슈인 수자원 문제 해결과 운송망 구축 등의 협력과 함께 국경물류 단지 구축, 디지털 부문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안보 급변 상황의 대응을 위한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2021년 7월에 개최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간의 온라인 정상회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음.

### EAEU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 2015년 러시아와 함께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을 주도한 카자흐스탄은 2021년 EAEU 최고이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역내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20년 카자흐스탄의 EAEU 내 교역은 2015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역내 국가들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2015년 대비 6% 증가하였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EAEU 회원국들인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에 각각 5,000만 톤 이상의 밀가루를 포함한 물품을 지원하였음.
- 한편 카자흐스탄은 EAEU의 정치기구화에는 반대하고 있음. 2021년 6월 러시아 외교부가 제안한 서방의 대러시아, 대벨라루스 제재에 대한 EAEU 차원의 공동대응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통합기구인 EAEU의 대외 정치차원의 협력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반대하였음.
- \* EAEU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 아르메니아이며, 준회원국으로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쿠바가 가입해 있음.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되었고, 벨라루스는 2020년 8월의 대선 과정의 부정과 이후의 시위 탄압으로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됨.

## 국제관계

### 중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으로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제2위의 수입상대국임.
- 중국은 2020년 카자흐스탄 수출의 19.8% 비중을 점유하여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2013~19년에는 이탈리아가 최대 수출상대국), 수입상대국으로는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 비중(16.4%)을 기록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과 비중

(단위: %)

2019년			
국가	교역	수출	수입
러시아	20.4	9.8	36.0
중국	15.1	13.8	17.1
이탈리아	10.2	14.4	4.0
한국	6.7	5.3	8.7
네덜란드	4.7	7.6	0.6
2020년			
국가	교역	수출	수입
러시아	21.7	10.5	35.4
중국	18.3	19.8	16.4
이탈리아	8.8	14.0	2.4
한국	6.8	2.1	12.6
네덜란드	3.9	6.6	0.6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https://stat.gov.kz>)

- 중국 기업들은 기존에는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자원 부문에 주로 투자하였으며, 최근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의 Yutong 그룹은 2020년 말 카라간다 지역에 버스 생산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연 1,200대의 버스를 생산할 계획임. 중국의 Doublestar사는 카라간다 지역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고무타이어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음.<sup>8)</sup>
-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호르고스 물류특구, 서중국-서유럽 운송로 등이 주요 일대일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누르술탄 도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주요 일대일로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현황
호르고스 물류특구	-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호르고스에 물류특구와 산업특구 건설	완료
서유럽-서중국 국제회랑	- 카자흐스탄을 통해 중국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전체 8,445km의 도로 건설사업으로 카자흐스탄 구간은 2,787km 도로 건설 - 이를 통해 중국에서 유럽까지 10~12일 이내 화물수송 전망	완료
누르술탄 도시 경전철	- 공항과 누르술탄 시내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추진 중

8)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1. p. 67.

## 외채상환태도

### 외채는 대부분 증장기이며, 연체율은 전년도에 비해 개선

- 2020년 9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 잔액은 단기 1억 9,300만 달러, 중장기 8억 3,730만 달러 등이며, 이 가운데 연체액은 중장기 60만 달러(약 0.07%) 수준임.
- 이는 2019년 9월의 수치(단기 1억 3,630만 달러, 중장기 13억 8,260만 달러 가운데 중장기 연체액 650만 달러(약 0.5%))에 비해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중장기 외채가 감소하였으며, 연체율이 하락한 것임.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21.01)	5등급(2020.01)
Moody's	Baa3(2021.02)	Baa3(2017.07)
Fitch	BBB(2021.02)	BBB(2017.10)

### 2021년 국제신용평가 3사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기존 등급 유지

- Moody's는 카자흐스탄의 낮은 공적채무 비중,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대외경제충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1년 2월 기존 등급(Baa3)과 등급전망(긍정적)을 유지하였음. 다만, 경제다변화 미흡, 제도적 취약성, 금융 부문의 취약성, 장기적인 정치적 위험도 등의 측면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 Fitch는 풍부한 외환보유액, 금융시장의 안정 추세, 안정적인 실업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21년 2월 기존 등급(BBB)과 등급 전망(안정적)을 유지하였음.

- 카자흐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 국내소비 감소로 인해 -2.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2019년의 -0.6%에서 2020년에는 -7.3%로 확대되었음.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3.2%의 플러스 성장이 전망되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감소(GDP 대비 -3.0%)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6월에 집권한 토카예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여당 당수, 국가안보위 의장 등을 직책을 보유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2021년 1월에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나자르바예바 전 상원의장이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어 유력 정치인으로 재부상하였음.
- 정부는 '2050 국가전략', '2025 국가발전계획', '디지털 카자흐스탄'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 및 사법개혁 지속을 통해 사회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에는 GDP 규모와 수출액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외채 관련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